

2015년도 제52회 변리사 2차 국가자격시험 문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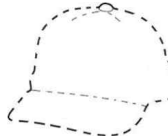


| 교 시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수험번호 | 성 명 |
|-----|------|------|------|-----|
| 2교시 | 상표법 | 120분 | | |

【 문제-1 】 (30점)

甲 회사는 1981. 5. 28. 지정상품을 ‘우산, 지팡이, 부채, 모자’로 하는 상표 Y를 출원하여 1984. 9. 14. 등록결정을 받아 1984. 9. 21. 상표등록을 마쳤고, 2014. 7. 11. 3차 존속기간갱신등록까지 마쳤다. 甲 회사는 1975년경부터 세계 각국에서 등록상표 Y의 형상과 같이 각종 모자에 甲 회사 약칭(New Stride)의 첫 글자에서 따온 YN이라는 상표(‘실사용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였으며, 모자 등의 국내 매출액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합계 약 5,820억 원에 달하였다. 또한, 甲 회사의 ‘New Stride’가 어패럴뉴스사가 선정한 2009년 스포츠 부문 ‘베스트 브랜드’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甲의 실사용상표 YN은 ‘모자’ 상품에 관하여 적어도 2009년 경부터는 수요자 사이에서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乙 회사는 자신이 생산한 모자에 XN과 그 하단의 ‘UNISTAR’ 문자로 구성된 X 표장을 부착하여 판매하였는데, 甲 회사는 이에 대하여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X 표장의 사용을 중지하도록 경고장을 발송하였다.

이에 乙 회사는, 등록상표 Y가 Y1과 같은 윤곽도형 속에 Y2와 같은 내부도형이 결합된 상표이므로 전체상표인 Y로서 상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도형 내부의 Y2 도형이 상표의 요부로서 분리·관찰되거나 기능하는 것이 아니므로 확인 대상표장 X는 등록상표 Y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 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각 표장의 약식 표시는 아래와 같다.

| 구분 | X | XN | Y | Y1 | Y2 | YN |
|----|---|---|---|--|---|---|
| 표시 |  |  |  |  |  |  |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이 문제에서 위치상표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 (1) 甲 회사의 등록상표 Y의 등록적격성에 대하여 논하고 이와 관련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의 법리를 설명하시오. (14점)
- (2) 甲 회사의 등록상표 Y에 대한 乙 회사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인용 여부를 판단하고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상표등록의 무효사유 및 그와 관련된 권리남용 항변의 관계를 논하시오. (16점)

상표법 4-1 [2교시]

【 문제-2 】 (20점)

케이블TV 채널 ‘TVent’는 연예프로그램 ‘아쭈그리(아찔한 주말 그들만의 리그)’를 기획하여 2009년 3월 첫째 주 토요일부터 방송하였다. 네 개의 코너로 나누어진 ‘아쭈그리’ 프로그램은 매 방송분마다 시청률 등을 비교·종합하여 4주 단위로 탈락 코너를 결정하는 등 여러 가지 획기적인 진행방식을 도입하여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그 여세를 몰아 3주차 방송 시에는 케이블 방송에서 경이적인 10%대 시청률을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2B4U’라는 명칭의 코너는, 6인으로 구성된 동명(同名)의 아이돌그룹이 진행하는 각종 소외계층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프로젝트 코너로서, ‘아쭈그리’ 프로그램 내에서 뿐만 아니라 지상파를 포함한 전체 방송 콘텐츠 중에서 독보적인 인기를 누려오고 있다. 아이돌그룹 ‘2B4U’는 ‘아쭈그리’ 프로그램의 첫 방송 4주 전부터 공개된 신선하고 화려한 뮤직비디오와 시원한 가창력을 뽐내는 코너 로고송으로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으며, 2009년 상반기에만 5차례, 이후 매년 3차례 이상씩 새로운 음원을 발매하는 등 각종 광고, 영화, 공연, 드라마 기타 왕성한 방송 활동으로 현재까지도 국내외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2B4U’는 문자 그대로 ‘(We're) To Be For You! (우리는)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라는 의미와 더불어 구성원 중 다소 거칠고 강한 캐릭터 2인의 2B(2 Bad-guys), 어리숙하고 잘생기지 않은 캐릭터 4인의 4U(4 Ugly-guys)라는 의미로도 활용되어 왔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1) 甲은 상표의 구성을 ‘**2B4U**’로 2009. 12. 1. 출원하였으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이유로 등록이 거절되었다. 이러한 거절이유를 추론하여 관련 판단 법리를 설명하시오. (10점)
- (2) 한편, 乙은 상표의 구성을 ‘**2B4U**’로 2009. 12. 1. 출원하여 등록을 받았다. 만약 乙이 동일한 상표구성으로 2015. 2. 2. 최초 출원하였으나 등록이 거절되었다고 가정하는 경우, 상표법 제7조제1항 소정의 거절이유를 추론하여 관련 판단 법리를 설명하시오. (10점)

【 문제-3 】 (30점)

甲은 조립식 블록 장난감의 기본적인 형상으로서 조립식 블록 장난감의 조립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표장인 “



(지정상품: 조립식 블록 장난감)”을 2013. 11. 5. 입체상표로서 상표등록출원하였고 (출원서에 입체상표로 출원함을 표시함), 해당 상표는 2014. 10. 2. 상표등록 되었다. 甲은 동종업을 영위하는 경쟁업자인 乙이 甲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형상을 조립식 블록 장난감의 입체상표로서 사용하여 해당 장난감을 판매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乙을 상대로 하여 특허심판원에 2015. 7. 1.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1) 乙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답변서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는 甲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답변함과 아울러, 특허심판원에 甲의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와 관련된 판단 법리와 그 결과에 대하여 각각 논하시오. (10점)
- (2) 甲은 식별력이 있는 문자상표로서 별도로 상표등록까지 받은 등록상표인



“JUNGO”를 결합한 표장인 “ (지정상품: 조립식 블록 장난감)”을 역시 입체상표로 출원서에 기재하여 2014. 10. 24. 상표등록출원하였다. 그런데 해당 출원상표가 2015. 6. 30. 출원공고가 되자, 이를 발견한 乙은 우선 甲의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무효사유와 동일한 이유로서 해당 출원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하였다. 상표등록이의신청서에서 乙은 해당 출원상표에 식별력이 있는 문자상표가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출원상표가 입체상표로 출원된 것이어서 문자상표는 고려하면 안되고 입체적 형상 자체만으로 등록적격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고려하여 이의신청이유와 관련된 판단 법리와 이의신청의 결과에 대하여 논하시오. (13점)

- (3) 甲의 동종업자이자 경쟁업자인 丙은 “JUNGO”라는 문자상표만을 ‘조립식 블록 장난감’의 포장에 표시해서 동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丙이 甲의 등록상표인 “JUNGO”와 동일한 상표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甲은 丙에게 상표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甲은 이 소송에서 첫째, 甲이 丙과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丙의 상표권 침해에 의하여 甲이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이 사실상 추정되고, 둘째, 丙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각각 논하시오. (7점)

【 문제-4 】 (20점)

甲은 “**ALM**”이라는 등록상표(출원일: 2014. 6. 12., 등록일: 2015. 5. 6.)의 상표권자이고 해당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골프가방’이다. 그런데 미국의 丁 법인은 미국에서 “**ALM** (지정상품: 골프가방)”을 2010. 8. 10. 상표등록받은 상표권자이다. 甲은 미국의 丁 법인과 자신이 대표이사인 丙 법인의 명의로 해당 상표가 부착된 ‘골프가방’을 한국에 독점적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丙 법인은 해당 계약에 근거하여 “**ALM**”이 부착된 가방 등을 국내로 수입 및 판매하여 왔으며, 甲은 해당 계약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丙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한편, 乙은 “**aim**”이라는 등록상표(지정상품: 골프가방)의 상표권자인데, 이와 같은 乙의 등록상표는 골프가방을 거래하는 수요자 간에 주지·저명하지는 않지만, 2014. 7.경부터 현재까지 특정인의 상품출처로서 인식되어 있을 정도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1) 甲이 ‘골프가방’에 관하여 “**aim**(실사용상표)”의 형태로 2014. 8.경부터 주로 사용하자, 乙은 甲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73조제1항제2호를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甲은 이에 대하여 첫째, 甲의 실사용상표는 비록 乙의 등록상표와 외관상 유사하여 혼동의 우려가 커지게 되었으나 甲의 등록상표를 소문자로 표시한 것뿐이어서 상표법 제73조제1항제3호 소정의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사용에 해당하고, 둘째, 乙의 등록상표는 甲의 실사용상표의 사용 시점에 국내에서 주지·저명하지는 않았으므로, 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답변의 타당성에 대하여 논하시오. (12점)
- (2) 甲은 丁 법인의 동의없이 상표등록을 받았으며, 해당 등록상표를 개인적 및 별도의 독자적인 용도로는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丙 법인의 영업을 위해서만 사용하였다. 丁 법인은 甲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73조제1항제7호의 전단 부분인 “상표법 제23조제1항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상표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해당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논하시오. (8점)